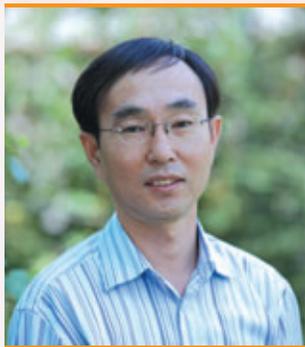


+ 이기석 · CBS 기술기획관리 부국장

# 미디어 빅뱅에 대한 단상

미디어법 개정이 자본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주파수 경매제니 해서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가 줄어들고, 주파수 재배치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주파수가 방송에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방송인허가 조직체계를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엔 제작, 전송, 송출로 나누어 분산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방송사가 언론기능의 역할 수행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사내 직원교육의 일환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수차례 가졌다. 먼저, 책을 정하고 개별적으로 읽은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미디어 빅뱅”(김택환, 이상환 지음)이란 책이 선정되어 여러 의견들이 오간 적이 있다.

토론 준비를 위해 빅뱅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조회해 보았더니 원래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을 뜻하는 말로 금융규제 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서 탄생을 위해서로 흩어지고 때론 융합되어지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련의 창조의 과정이라 이해했다.

요사이 빅뱅이란 용어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결코 순탄치 않은 것 같아 우울하기까지 하다.

연유야 어떻든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급속한 변화의 한중간에 와있으며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자못 심각한 수준임을 방송기술인들 모두는 동의할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이 자본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주파수 경매제니 해서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가 줄어들고, 주파수 재배치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주파수가 방송에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방송인허가 조직체계를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엔 제작, 전송, 송출로 나누어 분산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방송사가 언론기능의 역할 수행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은 어떤가? 압축기술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급급한 것이 현실이고, 전송기술 또한 RF 베이스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 됐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송, 편집업무의 아웃소싱, 아카이빙 시스템 운용도 그 뒤를 따를 기세고,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도입도 초기 단계지만 그 효율성에 고개가 끄덕 거려지니 정책, 기술발전, 모든 트렌드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한창이어서 가히 빅뱅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방송기술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의 진행들이 달갑지만은 않아 자연스럽게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때론,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 자괴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간들이 지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것이고, 우리 방송기술인들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 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머지않은 미래 우리들의 자화상이 제법 그럴듯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지금까지 해온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언론기능 역할 수행 주체로서의 위상만을 고수하려는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방송을 바라보는 우월적인 고정관념과 지상파방송으로서 축적된 인지도는 빅뱅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는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보다 폭넓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중요하겠다. 빅뱅의 혼란과 위기의 현 상황을 차분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방어적이지만은 않은 자유로운 많은 발상들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보자.

어차피 미래는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미지의 시공간이며, 우리는 오늘을 통해 준비하고 노력할 뿐이 아닌가?

배팅의 찬스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방송기술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빅뱅의 중간이므로...